

김사엽의 『만엽집(万葉集)』관(觀) 고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박상현**

koreaswiss@khcu.ac.kr

Contents

- I. 들어가면서
- II. 김사엽의 『만엽집』번역의도
- III. 김사엽의 『만엽집』관(觀) 형성
- IV. 나오면서

Abstract

日帝強占期(=植民地時代)における京城帝国大学で「朝鮮語學・朝鮮文學」を専攻とした金思燁氏は、戦後『萬葉集』を韓国語で翻訳した。『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というのがそれである。金氏は韓国語本『萬葉集』の完訳を目指したが、彼の突然の死によって、韓国語訳『萬葉集』は途中で終わってしまった。そして、最近になって李妍淑氏が改めて『萬葉集』の完訳を目標として今『萬葉集』を韓国語で翻訳している最中である。

ところで、金思燁氏が『萬葉集』を翻訳しようとした意図は何だったのであろうか。『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の「まえがき」によると、彼の翻訳意図は明確だった。すなわち、『萬葉集』に「濃厚な韓國的要素」を見いだすことであった。ここで「濃厚な韓國的要素」というのは色々なことから構成されているが、その中にはたとえば『萬葉集』には古代韓国語が見いだせるということがある。そして、『萬葉集』に「濃厚な韓國的要素」を発見しようとした彼の立場は、『萬葉集』に対する彼の見方で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萬葉集』から「濃厚な韓國的要素」を見いだそうとした彼の『萬葉集』観は、内的要因と外的要因によって成されていると思われる。まず、内的要因としては日帝強占期(=植民地時代)に芽生えた彼の民族主義意識があった。そして、それは金思燁氏のように京城帝国大学で「朝鮮語學・朝鮮文學」を専門とした韓国人たちが共有していたメンタリティーだった。一方、外的要因としては古代韓日関係の中で古代日本に與えた古代韓國の影響を無視したり、軽んじたりする日本の知識人の立場に対する彼の反発があった。そして、とても興味深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전공

いところは、金氏のように『萬葉集』に『濃厚な韓國的要素』を読み取ろうとした見方は彼だけが持っていたものではなかった。それは従来日本研究をしてきた韓国の研究者たちが基本的に共有していたものの一つだった。

Key Words : 万葉集、金思燁、徐斗銖、翻譯、民族主義

(Mannyousyuu, Kim Sa Yop, Suh Doo Soo, translation, nationalism)

I. 들어가면서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연숙이 『만엽집(万葉集)』 완역을 목표로 지금 한창 한국어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실이 최근에 『한국어역 만엽집 1-3』으로 박이정에서 출판되었다.¹⁾ 여기에는 총 20권으로 구성된 『만엽집』 가운데 우선 권1에서 권4까지가 번역되어 있다.

『만엽집』 연구에서 일가를 이룬 일본인 연구자인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는 이연숙의 『한국어역 만엽집』을 추천하는 글인 『대장정의 출발-이연숙 박사의 『한국어역 만엽집』 간행을 축하하며』에서 2012년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인 『만엽집』의 완역은 영어, 프랑스어, 체코어, 중국어로만 달성됐다고 한다.²⁾ 아직 한국어로 된 『만엽집』 완역이 없다는 말이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국어의 『만엽집』 완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예컨대 『만엽집』을 한국어로 번역할 만한 연구자나 번역가가 없었을 수도 있고, 『만엽집』이 완역할 만한 작품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을 수도 있고, 번역서를 학문적 업적으로써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 한국학계의 풍토가 『만엽집』의 완역을 미루게 했었을 수도 있다.

한편 나카니시 스스무는 좀 전에 인용했던 『대장정의 출발-이연숙 박사의 『한국어역 만엽집』 간행을 축하하며』라는 글에서 『만엽집』이 왜 번역하기 어려

1)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2-만엽집 권3』박이정.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3-만엽집 권4』박이정.

2) 나카니시 스스무(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p.1.

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첫째, 작품 수가 방대하다. 둘째, 『만엽집』은 시(詩)이기 때문에 산문³⁾과 달리 독특한 언어 사용법이 있고, 또한 내용이 생략되거나 압축된 부분이 많다. 셋째, 고대어이므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더구나 천년 이상 필사(筆寫)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자도 적지 않다. 넷째, 『만엽집』의 작품은 당시의 관습, 사회, 민속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⁴⁾

그런데 이와 같이 번역하기 쉽지 않은 『만엽집』의 한국어 완역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사실 이연숙이 아니다. 고(故) 김사엽(1912년~1992년)이 이미 한국어로 『만엽집』을 완역하고자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업 도중에 작고하는 바람에 『만엽집』 20권 가운데 권1~권16까지만 『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成甲書房, 제1권 1984, 제2권 1985, 제3권 1987, 제4권 1991)으로 일본에서 출간되었다⁵⁾. 그리고 그의 사후 『한역 만엽집』의 미완성 유고가 『김사엽전집』 제12번(박이정, 2004)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만엽집』 권17~권20에 실려 있는 작품 627수(首) 가운데 158수가 발췌·번역되어 있다. 이 미완성유고는 김사엽이 『만엽집』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곧 그 번역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만엽집』을 최초로 한국어로 완역하려고 했던 김사엽⁶⁾에 초점을 맞춰, 먼저 『만엽집』을 완역하고자 했던

3) 일본의 산문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겐지이야기(源氏物語)』가 있는데, 이것의 한국어역은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겐지이야기』의 대표적인 번역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용신(1999) 『겐지이야기』(나남), 임찬수(2005) 『겐지모노가타리』(살림), 김난주(2007) 『겐지이야기』(한길사), 김종덕(2008) 『겐지이야기』(지만지) 등

4) 나카나시 스스무, 앞의 논문, p.2.

5)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은 일본국제교류기금 번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경희(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pp.208-258.

6) 『만엽집』의 한국어 ‘완역’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김사엽이지만, 『만엽집』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그가 아니다. 이미 일제강점기하에 서두수와 김억이 거의 같은 시기에 『만엽집』을 한국어로 발췌·번역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 -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_____ (2009) 『식민주와의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79-194.

그의 번역의도를 철저히 분석한다. 이 번역의도에 그의 『만엽집』관(觀)이 잘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김사엽의 『만엽집』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워서 고찰하고자 한다.⁷⁾

II. 김사엽의 『만엽집』번역의도

1912년 경상북도에서 출생한 김사엽은 1932년에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⁸⁾, 그 이듬해인 1933년에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예과(豫科) 10회로 문과B조(組)⁹⁾에 입학했다. 입학 동기로는 중국문학을 전공한 후, 현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바 있는 배호가 있었다. 그 후 본과(本科)에 들어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에서 수학했고¹⁰⁾ 1938년에 졸업했다. 곧 김사엽은 예과와 본과를 합쳐 1933년부터 1938년까지 학부에 재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1940년에 경성제대대학원에 들어가 ‘이조(李朝)시대의 가요연구’라는 테마로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¹¹⁾

‘이조시대의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김사엽이 일본의 국학(國學)을 대표하는 일본문학의 작품 가운데 『만엽집』을 체계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이에 대해 김사엽은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 그가 『만엽집』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날 城大¹²⁾에서 韓國語文學科¹³⁾에 在籍하여 소정 학점(單位)을 이수하였을 때 대학의 학칙이 한국어문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상당 학점을 일본어

7) 노파심으로 천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본고에서 가끔 이연숙을 언급하는 것은 김사엽과 그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최근의 『만엽집』번역 현황을 보여주거나, 본고의 논증을 위한 방증(傍証)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8) 청계김사엽박사추모기념사업회(2002) 『청계김사엽박사추모문집』박이정, p.41.

9) 문과는 문과A와 문과B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는 법과 지방생이, 후자는 문과 지방생이 입학했다.

10)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다락원, p.281.

11) 청계김사엽박사추모기념사업회, 앞의 책, p.41.

12) ‘경성제대’를 가리킨다.

13) 당시는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로 불렸다.

문학 강좌를 이수해야 하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부득이(?)¹⁴⁾ 싫어도 들어야만 했¹⁵⁾다.

그럼 김사엽과 『만엽집』과의 인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사엽이 경성제대에서 『만엽집』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예과 때부터라고 추정된다.¹⁶⁾ 그는 1933년에 예과에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는 아니지만¹⁷⁾ 1943년 6월의 「경성제국대학예과교수요강」에 따르면 고전과의 강독에 필수 교재로 『고사기(古事記)』·『논어』와 더불어 『만엽집』이 들어가 있었고, 이들의 수업 시간은 1학년과 2학년을 합쳐 2년간 총 265시간이나 되었다고 한다.¹⁸⁾ 그리고 김사엽이 경성제대 예과에 재학했던 시절에 당시의 ‘국어(國語)’인 ‘일본어(日本語)’를 담당했던 교수는 곤도 도키지(近藤時司)였다. 그런 곤도(1934)에게는 「일본상고의 시가집과 한일 사절(日本上古の詩歌集と日韓の使節)」(『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大阪屋號書店)과 같은 논문이 있었다. 이 글은 『만엽집』에 실려 있는 신라 사절(新羅使人)에 관한 것이다.¹⁹⁾ 따라서 예과 시절에 김사엽이 곤도 도키지로부터 『만엽집』을 배웠던 것은 확실하다.²⁰⁾

14) 원문 그대로.

15) 강조 표시는 인용자. 이하 동일.

김사엽(1983) 『일본의 만엽집』민음사, p.4.

16) 물론 김사엽은 경성제대 예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만엽집』과 같은 일본고전을 간략하게나마 접할 수 있었다. 당시 경성제대 입시문제에는 일본고전을 현대일본어로 고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17) 여기서 김사엽이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했을 당시인 1933년 자료가 아니라 1943년 자료를 활용한 것은 1933년 자료를 현재로서는 입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점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18)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1943)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6권 대학서원, p.11.

19) 『만엽집』권15에는 신라에 파견되는 사신들이 가족과의 헤어짐을 가슴 아파거나 여행(旅) 중의 감상을 노래(歌)한 것이 있다. 이들 와카(和歌)를 보통 「견신라사인가군(遣新羅使人歌群)」이라 부른다.

20) 1924년에 출간된 「경성제국대학예과일람」과 1928년에 나온 「경성제국대학예과일람」, 그리고 1933년에 출판된 「경성제국대학일람」 및 1941년에 나온 「경성제국대학일람」에 의하면 곤도 도키지가 당시 경성제대 예과의 ‘국어’(=일본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곤도는 적어도 1924년부터 1941년까지 경성제대 예과에서 ‘국어’(=일본어) 담당 교수로 재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김사엽은 1933년부터 1938년까지는 학부에, 1940년 이후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예과(1924)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6권 대학서원, p.74.

경성제국대학예과(1928)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6권 대학서원, p.86.

한편 본과에 진학했을 때에는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로부터 『만엽집』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는 최초로 외지(外地)에 설치된 ‘국문학’(=일본문학)이었는데, 이것을 연 사람이 바로 다카기(高木)였다. 그는 1926년부터 1939년까지 경성제대에 재직했었다.²¹⁾

다카기 이치노스케가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에 재직하면서 강의했던 강의과목의 전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구할 수 있는 자료인 『청구학총(靑丘學叢)』²²⁾의 휘보(彙報)에 실려 있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강의제목 리스트는 그가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무엇을 강의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연도	강의제목
1931년도	소설사(헤이안조<平安朝>에서 무로마치<室町>까지) ²³⁾ , 역대(歷代)민요선(選), 국어학국문학(=일본어학·일본문학)강독연습
1932년도	국문학(=일본문학)개론, 근고모노가타리(近古物語)연습 ²⁴⁾
1933년도	중세문학개설, 고사기·일본서기 가요(記紀歌謠)강독, 만엽집(萬葉集)연습 ²⁵⁾
1934년도	국문학(=일본문학)개론 ²⁶⁾
1935년도	상대문학사개설 ²⁷⁾
1936년도	헤이안조 문학사개설, 고사기(古事記)강독, 근고(近古)문학연습 ²⁸⁾

경성제국대학(1933)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5권 대학서원, p.184.

경성제국대학(1941)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5권 대학서원, p.279.

21)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사엽은 예과와 본과를 합쳐 1933년부터 1938년까지 학부에 재학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사엽과 다카기는 경성제대에서 필연적으로 알고 지냈을 것이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1974) 『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耕文社, p.4.

22) 청구학회의 학회지다. 조선총독부와 경성제대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것이 청구학회다. 이 학회의 취지는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를 연구하여 일반인에게 그 성과를 보급하는 데 있었다.

정선이(2002) 『경성제국대학연구』문음사, p.119.

23) 『휘보』(1931) 『청구학총』제4호, 청구학회, p.187.

24) 『휘보』(1931) 『청구학총』제8호, 청구학회, p.205.

25) 『휘보』(1931) 『청구학총』제12호, 청구학회, p.195.

26) 『휘보』(1931) 『청구학총』제16호, 청구학회, p.127.

27) 『휘보』(1931) 『청구학총』제20호, 청구학회, p.196.

28) 『휘보』(1931) 『청구학총』제24호, 청구학회, p.200.

광복 후인 1947년에 김사엽은 서울대학교 예과교수로 교수직을 시작하여 경북대학교 교수를 지내다가 웬일인지 1960년에 돌연 일본의 덴리(天理)대학교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1982년에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교에서 퇴임한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조연현(1971)과 공저한 『한국문학사』(北望社)를 출간하는 등 논저와 역서를 통해 일본 내에 한국문학을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 이와 동시에 고대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및 『만엽집』에 담겨 있는 고대한국어 등에 대한 논저도 발표했다.²⁹⁾ 그 가운데 몇 몇 주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 <표2>와 같다.³⁰⁾

<표2>

저서	논문 등
『古代朝鮮語と日本語』(1974) 『記紀万葉の朝鮮語』(1979) ³¹⁾ 『古代朝鮮語と日本語』(1981) ³²⁾	『朝鮮語と日本語』(『古代日本語の謎』수록, 1973) 『高句麗・百濟・新羅』(『日本古代語と朝鮮語』수록, 1975) 『万葉集の中の朝鮮語』(『万葉集の言語と心』수록, 1975) 『古代朝鮮語と日本語』(『古代日本と朝鮮文化』수록, 1979)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하의 경성제대 예과 및 본과에서의 『만엽집』과의 만남 그리고 광복 후의 일본 체류 기간에 보여준 『만엽집』에 대한 관심이 결국 이후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이하, 『한역 만엽집』)』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즉 김사엽은 1982년 일본의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 영구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교수와 더불어 그 대학 부속의 일본학연구소 소장을 겸하게 된다. 좀 전에 이미 언급했듯이 작고하기 전까지 그는 『만엽집』 20권 가운데 권1~권16까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역 만엽집』을 일본에서 출판,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

29) 그는 1985년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로부터 야마가타 반토(山片蟠桃)상을 수상하게 된다. 『만엽집』을 비롯한 한일비교연구로 한일학술교류에 공헌했다는 것이 수상 이유였다.

30) 청계김사엽박사추모기념사업회, 앞의 책, pp.68-85.

31) 김사엽은 『고사기·일본서기·만엽집의 조선어(記紀万葉の朝鮮語)』의 서문인 「일본과 조선과의 언어의 접점을 구한다」에서 “일본의 고대문화(에서, 인용자), 그 풍토 속에 접하고 있는 조선적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대단히 빈약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대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그의 시각은 이후의 그의 저서, 예컨대 『일본의 만엽집』, 『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등에서도 반복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후술한다.

金思燁(1979) 『記紀万葉の朝鮮語』六興出版, p.9.

32) 1974년에 출간된 『古代朝鮮語と日本語』의 개정증보판.

판매했다³³⁾. 그는 『한역 만엽집』에서 『만엽집』의 번역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좀 길지만 그의 번역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다.

이 歌集을 우리말로 옮겨보려는데는 그 意圖가 여느 한 外國語作品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國內人에게 紹介하는 것과는 다른, 重要한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歌集이 지니고 있는 特異性이 直接的으로 우리語文學 民俗學 宗教 其他分野에 걸쳐 研究上 賸餘할 수 없는 價値 있는 參考文獻이 되는(원문대로, 인용자) 때문이다. 그 特異性이란 것은, 이 歌集에 採用되어 있는 表記形式이 우리新羅人이 創案하여 新羅語를 表記하던 鄉札과 같고, 萬葉의 노래의 形式(長·短歌, 旋頭歌)이 우리나라 傳統的인 노래 形式(長·短歌, 가사)과도 같은데다가, 萬葉集은 日本古語의 寶庫라고도 함직한 豊富한 옛말이 담겨져 있어, 아직 確立되어 있지는 않지만 韓日兩國語의 親族關係를 證明하는데 있어서 日本側의 基本資料가 되는 것이며, 사실 萬葉集에는 술한 兩國同源語가 있음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側으로 볼 때, 하마(원문대로, 인용자) 消失되어버린 우리옛말을 이에서 찾아낼 수도 있다. 이 밖에 萬葉노래에서 보여주는 萬葉人의 信仰形態 生活習俗도, 그 系統과 양상을 같이 하였던 우리 古代人의 그러한 것들을 이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은 번역의도를 김사엽은 『일본의 만엽집』에서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한역 만엽집』을 출간하기 1년 전인 1983년에 『만엽집』전반에 대한 해설서를 먼저 세상에 선보여 『만엽집』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고 있다. 이 책의 정확한 서명은 『일본의 만엽집-그 내포된 한국적 요소』인데, 이 책의 결론은 ‘맺음글 : 농후한 한국적 요소’로 되어 있다.³⁵⁾ 이 때 ‘한국적 요소’라 함은 (1)향찰과 만엽가나(萬葉假名), (2)한국의 가형(歌形)과 동일한 만엽의 가형, (3) 『만엽집』에 담겨진 한국어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맺음글 : 농후한 한국적 요소’에서 김사엽은

33) 일본에서는 成甲書房에서, 한국에서는 교보문고에서 동시 시판되었다.

34) 김사엽(1983), 앞의 책, pp.3-4.

35) 김사엽(1983), 앞의 책, p.263.

『萬葉集』을 우리가 깊이 검토하면 할수록 그것이 지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곧 韓國的 要素임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他國의 문학작품이지마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대의 문학·언어·민속 기타를 탐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우리나라에서 자료 부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 두절되다시피 된 현황을 타개하는 열쇠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³⁶⁾

고 지적한다.

요컨대 『한역 만엽집』과 『일본의 만엽집』을 검토해보면, 김사엽이 『만엽집』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다. 즉 고대문헌의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한국의 고전학 즉 어문학, 민속학, 종교학 등에 걸친 연구에 일본의 고대사가 집인 『만엽집』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만엽집』에는 우리의 고전학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한국적 요소’, 예컨대 고대한국어를 포함한 문학·민속 등이 적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번역의도를 가지고 김사엽은 『만엽집』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도 좀 길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임으로 그대로 인용한다.

첫째, 上記한 바와 같이 많은 日人學者가 訓讀과 注釋을 하였거니와, 노래 가운데는 難解하여 아직 解讀 못한 노래도 몇首 있고, 또 解讀한 것도 異說이 많아 擇一하기가 곤란한 노래도 많다. 그리고 從來의 注釋에는 故意 또는 無識으로 인하여 우리側의 古語나 習俗등을 考慮하지 않고 解讀하였으므로 筆者는 이에 着目하여 우리立場에서 본 筆者의 見解도 없지 않다. 그래서 번역에는 日本學者들 見解 中에서 가장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說을 取하면서 異說은 參考로 注記하였다.

둘째, 어디까지나 노래이므로 우리말로 옮기는데도 노래답게 하기 위하여 노래形式으로 하였거니와, 原歌는 五·七調가 基本音數이며 이 音數로 옮길 경우 우리나라사람이 읽으면 違和感을 읽(원문대로, 인용자)으키게 됨으로, 우리 노래의 傳統的 基本音數인 三(四)·三(四)에 쫓아서 이룩하였다.

셋째, 노래의 用語는 理解와 鑑賞에 便宜하도록 現代語로 하였다. 그러면서 될수 있는대로 今日的用語를 피하여, 固有語表現을 하고자 하였는데 朝鮮語의 用語도 간간이 混入하여 古典的인 風韻을 多少나마 풍기고자 하였다(가령, 山=뫼,

36) 위의 책, p.264.

川=가람, 世上=누리, 神=검님 등)³⁷⁾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사엽이 『만엽집』을 번역하면서 일본 와카의 리듬인 5음(音)·7음·5음·7음·7음을 가능한 한 우리의 전통 음수인 3음(4음)·3음(4)음으로 바꾸어 번역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사엽은 『만엽집』에 실려 있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³⁸⁾

권7·1393

도요구니 기구의 바닷가 잔모래 바닥처럼 곱은마음 이라면 무엇을 한탄하리

권7·1394

조수가 차며는 숨고마는 둔치의 품일런가 만남은 잠시일뿐 그리움은 하도다

권7·1395

난바다의 물결이 다가드는 바위많은 바닷가 모자반은 남몰래 마음속의 근심이 되었도다

즉 번역학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김사엽은 『만엽집』을 번역할 때 출발언어중심주의 번역이 아니라 도착언어중심주의 번역, 낯설게 하기가 아니라 익숙하게 번역한다는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만엽집』연구자인 이연숙은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에 대해 자신의 『만엽집』역서인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에서 김사엽의 번역 작업을 “최초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³⁹⁾고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만엽집』권제16·3889번까지 번역이 된 상태여서 완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텍스트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⁴⁰⁾ 내용을 보면 岩波書店의 일본고전문학대계 『

37) 김사엽(1984), 앞의 책, pp.3-4.

38) 김사엽(1985) 『한역 만엽집 2』成甲書房 p.336.

39)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p.5.

40) 김사엽이 『만엽집』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번역대본에 대해서는 이미 박상현이 『한역 만엽집(万葉集)』의 텍스트 연구』에서 그 번역대본이 일본고전문학대계(大系)의 『만엽집』이었다고 밝혀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08) 『한역 만엽집(万葉集)』의 텍스트 연구』 『동아시아고대학』제17집, 동아시아고

만엽집』을 사용하다가 중간에는 中西進 교수의 『만엽집』으로 텍스트를 바꾼 점, 음수율을 고려하지 않은 점, 고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 세로쓰기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⁴¹⁾

하지만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이 “최초의 한글 번역”⁴²⁾이라는 이연숙의 언급은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한국어로 『만엽집』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서두수다.

서두수는 1925년에 예과 2회 입학생으로 경성제대에 입학한 후, 본과로 진학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국어학·국문학’(=일어일문학) 강좌에서 『만엽집』의 권위자인 다카기 이치노스케를 사사(師事)했다. 그리고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에서 ‘국문학’(=일본문학)을 가르치면서 ‘국문학’(=일본문학)에 대해 글을 쓰기도 하고 하고⁴³⁾, 일본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두수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⁴⁴⁾에 『만엽집』의 작품 가운데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한국어로 번역한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연재했었다. 이 번역이 『만엽집』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⁴⁵⁾

대학회, pp.331-352.

41) 이연숙, 앞의 책, p.6.

42)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태준도 이연숙의 『한국어역 만엽집』을 서평하는 글에서 “한국 최초의 번역이었던 김사엽 박사의 책”과 같이 언급하면서, 김사엽의 『한역 만엽집』이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만엽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pijbook>(검색일:2012.12.24)

43)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일본적 특성: 명저 해설』(『국민문학』1939), 『일본문학의 특질』(『인문평론』1940), 『문학의 일본심』(『삼천리』1941), 『일본문학과 고전』(『매일신보』1942.3.28~4.3), 『문학의 일본심』(『조광』1942), 『일본의 생활미』(『반도의 빛<半島の光>』1942), 『명치문학이 탄생할 무렵(明治文学が生れる頃)』(『춘추』1942), 『명치소설(明治の小説)』(『춘추』1942), 『속 명치소설(明治の小説<つづき>)』(『춘추』1942), 『명치시가(明治の詩歌)』(『춘추』1942), 『병사의 마음(防人のこころ)』(『국민문학』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매일신보』1942.11.2~12), 『명치 극문학(明治の劇文学)』(『춘추』1942),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국민문학』1943)

44)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정책 등을 조선어로 선전하는 매체였다.

45) 서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_____ (2012)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만엽집』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

여하튼 위 인용문에 나타난 김사엽의 『만엽집』번역에 대한 이연숙의 비판에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우선 이연숙은 김사엽이 음수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음수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만엽집』을 한국어로 옮길 때 와카의 5음·7음·5음·7음·7음을 준수하면서 번역하면 한국인 독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와카의 리듬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리듬인 3음(4음)·3음(4)음을 수용했을 뿐이다. 또한 김사엽이 굳이 고어를 사용하면서 『만엽집』을 번역했던 것은 ‘고전적인 풍운(風韻)’⁴⁶⁾을 다소나마 풍기고자 했던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김사엽의 『만엽집』번역의도에는 『만엽집』에서 ‘농후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의 『만엽집』관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김사엽의 『만엽집』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Ⅲ. 김사엽의 『만엽집』관(觀) 형성

앞에서 소상히 검토했듯이 김사엽의 『만엽집』번역의도는 『만엽집』과 같이 ‘농후한 한국적 요소’가 발견되는 일본의 고대문헌을 한국의 고전학 연구를 위해 번역·소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적 요소’라는 것은 (1)향찰과 만엽가나(万葉仮名), (2)한국의 가형(歌形)과 동일한 만엽의 가형, (3) 『만엽집』에 담겨진 한국어로 구체화된다. 그럼 먼저 (1)향찰과 만엽가나에 대해 김사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김사엽은 『만엽집』의 표기법인 만엽가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정한다. 즉 만엽가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안하여 오랜 시일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완성시킨 여러 가지 표기법이 저 나라에 건너간 우리나라 지식인들에 의해 전파되고 그리고 동시에 쓰이면서 일본어음에 알맞도록 개조됐다고 단언한다.⁴⁷⁾

일본문화학회, pp.117-132.

46) 주37의 인용문 참조.

그리고는 그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경우, 漢字가 수입되자 먼저 음과 訓의 토착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誓記體→吏讀→鄉札로 발전해 갔는데,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誓記體式의 구문법, 吏讀와 같은 宣命이나 祝詞, 鄉札과 같은 萬葉仮名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호간의 발달단계를 찾아내기가 곤란하다. 게다가 고유명사의 표기법 같은 것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고유명사의 표기법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흔적을 찾아낼 수 없다.⁴⁸⁾

다음으로 (2)한국의 가형과 동일한 만엽의 가형이다. 김사엽은 『만엽집』의 가형에는 장가(長歌), 단가(短歌), 선두가(旋頭歌)⁴⁹⁾가 기본이고, 이 가운데 단가만이 일본 운문의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 가형 중 장가형식은 우리나라 가사(歌辭) 형식과 꼭 같은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⁵⁰⁾ 더 나아가 김사엽은 이와 같은 노래 형식뿐만이 아니라 시상(詩想), 취제(取題), 동식물, 민간신앙, 습속 등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것, 한국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언급한다.⁵¹⁾

마지막으로 (3) 『만엽집』에 담겨진 한국어이다. 여기서 김사엽은 『만엽집』에는 우리나라 삼국의 언어 및 형태와 동질적인 요소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 『만

47) 김사엽(1983), 앞의 책, p.264.

그의 이런 입장은 아래와 같은 글에서도 확인된다.

김사엽(1985) 『향가와 만엽집의 상관관계』, 『한남어문학회』제11집, 한남대학교, pp.5-15.

48) 김사엽(1983), 앞의 책, p.265.

49) 선두가는 6구체(句体) 와카로 5음·7음·7음, 5음·7음·7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50) 위의 책, pp.266-267.

51) 위의 책, p.268.

이런 입장은 좀 전에 소개했던 『향가와 만엽집의 상관관계』에서도 보인다. 즉 김사엽은 『향가와 만엽집의 상관관계』에서 “일본의 만엽집을 보면 일본에 없는 풀·동물, 더욱이 고사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가령 일본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벌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래가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은 봄이 되면 여자들이 모여 봄풀을 모두 뜯어 들여서 국을 끓여 먹는 관습이 있고 그것을 적은 글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꽃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보면 만엽집에는 신라의 향가에 영향 받은 노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와 같이 말한다.

김사엽(1985) 『향가와 만엽집의 상관관계』, 『한남어문학회』제11집, 한남대학교, p.15.

엽집』의 감상에는 한국어학을 바탕으로 해야만 정당한 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신(神)에 관련된 어류(語類), 예능·오락 관계의 어류다. 전자에 들어가는 용례로는 そら(空)·わたつみ, うけひ, ちはやぶる, しのぶ草가 있고, 후자의 용례로는 わざ, 樗⁵²⁾浦·折木四가 있다.⁵³⁾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관심은 김사엽이 ‘한국적 요소’로 든 향찰과 만엽가나, 한국의 가형과 동일한 만엽의 가형, 『만엽집』에 담겨진 한국어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사실(fact)인지 아닌지에 있지 않다. 오히려 김사엽이 『만엽집』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곧 『만엽집』에서 ‘농후한 한국적 요소’를 읽어내고 있는 그의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있다.

먼저 김사엽의 『만엽집』관 곧 『만엽집』에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만엽집』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내적 요인부터 살펴보자.

김사엽의 지적대로 『만엽집』에 보이는 ‘わた’가 한국어의 ‘바다’와 어원이 같다고 보는 설이 일본에도 있다.⁵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엽집』에 수록되어 있는 4500여 수의 노래에 사용된 모든 어휘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던 김사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엽집』에 수록된 어휘 속에서 고대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그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만엽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경성제대의 ‘조선어·조선문학’ 강좌를 다닐 때부터 이미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인용했듯이 “필자는 지난날 城大에서 韓國語文學科에 在籍하여 소정 학점(單位)을 이수하였을 때 대학의 학칙이 한국어문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상당 학점을 일본어문학 강좌를 이수해야 하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부득이(?)⁵⁵⁾ 싫어도 들어야만 했”다고 하는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⁵⁶⁾

52) 가죽나무 저.

53) 김사엽(1983), 앞의 책, pp.269-274.

54) 예를 들어 오노 스스무·사타게 아키히로·마에다 킨고로(大野晋·佐竹昭広·前田金五郎)가 편찬한 『岩波古語辞典』에는 ‘わた【海】’를 “조선어pata와 같은 어원”이라고 해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설이 일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大野晋·佐竹昭広·前田金五郎(1990) 『岩波古語辞典』(補訂版) 岩波書店, p.1431.

55) 원문 그대로.

56) 김사엽(1983), 앞의 책, p.4.

또한 김사엽을 포함하여 경성제대에서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를 선택한 한국인들의 멘탈리티에 다분히 민족주의적 의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조운제의 고백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조운제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에 진학했었는데, 후일 그는 조선문학을 전공했던 이유가 독립운동의 일환에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런 사정을 그는 『나의 국문학과 학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실제로 나는 나의 민족독립주의를 실천할 기회와 힘이 없음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 그 정력을 우리나라 민족정신의 결정인 고전문학의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학자가 되려 한 것은 숭고한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순학자적인 양심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한 방편으로서 하였던 것이 틀림없다.⁵⁷⁾

한편 『만엽집』에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던 김사엽의 『만엽집』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거기에는 고대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일본 지식인의 고대한일관계관(觀)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 지식인 가운데에는 고대한일관계에서 고대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한국에서 적지 않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김사엽은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즉 그는 『고사기·일본서기·만엽집의 조선어(記紀万葉の朝鮮語)』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중국 대륙으로부터 직접 수용한 것이고, 어떤 일부분에 한해서만 조선으로부터도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일본에 전달했다고 하는, 즉 말하자면 조선은 경유지에 지나지 않았다고 (일본의 지식인은 인용자)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틀렸다. 일본의 대부분의 문화는 조선에서 온 것이고, 조선의 것을 수용한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것은 일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⁵⁸⁾

57) 조운제(1964) 『도남잡식』을유문화사, p.371.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만엽집』에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는 김사엽과 같은 시각이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본연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최상용은 한국의 일본연구의 경향을 점검하는 글인 『일본연구의 동향과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종래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역사학계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 역사의 뿌리를 한국에서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유교를 포함한 중국의 사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원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논증하는 일이고 이러한 연구는 결코 그 중요성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⁵⁹⁾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더욱이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능하다면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는 적지 않은 일본 지식인들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⁶⁰⁾

요컨대 『만엽집』에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는 김사엽의 시각이라는 것은 고대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일본연구의 중요한 시각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지식인이 고대한일관계에서 고대일본에 미친 고대한국의 영향을 무시 및 폄하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IV. 나오면서

경성제대에서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를 수학했던 김사엽은 광복 후 『만엽집』을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그의 번역의도는 대단히 명확했다. 『만엽집』에서 ‘농후한 한국적 요소’를 읽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입장은 곧바로 『만엽집』을 바라보는 그의 『만엽집』관이기도 했다.

『만엽집』에서 ‘농후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의 『만엽집』관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우선 내적 요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짝이 튼 그의 민족주의 의식이 있었다. 한편 외적 요인으로는 고대

58) 金思燁(1979), 前掲書, p.11.

59) 최상용(1994) 『일본·일본학-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오름, pp.28-29.

즉 이 인용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 지식인이 일본문화의 기원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60) 위의 논문, p.29.

한일관계에서 고대한국의 영향을 애써 무시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일본 지식인의 태도에 대한 그의 반작용이 있었다.

결국 김사엽의 『만엽집』관은 그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한국인이라는 점과 고대한일관계에서 고대한국의 영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자 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배제되거나 약화된 시대에는 어떤 『만엽집』관이 생겨날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미 몇 번이나 인용했던 이연숙이다.

서두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동의대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연숙은 지금 『만엽집』의 한국어 완역을 목표로 한창 『만엽집』을 번역하고 있고, 그 첫 성과가 최근인 2012년 7월과 8월에 『한국어역 만엽집 1-3』으로 출간되었다. 거기서 그는 『만엽집』을 30년쯤 전에 처음 접했는데 그때부터 언젠가는 번역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작품의 번역을 시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중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시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엽집』의 한국어역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만엽집』의 한국어 완역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만엽집』의 자수율에 맞춰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따라서 필요한 곳에 간단한 해설을 붙이는 정도라면 번역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⁶¹⁾

결국 이연숙이 『만엽집』을 한국어로 완역하고자 했던 것은 곧 표현을 바꾸면 이연숙의 『만엽집』 번역의도는 김사엽처럼 『만엽집』에서 ‘농후한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그냥 『만엽집』을 한국어로 번역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연숙이 보이고 있는 이런 『만엽집』의 번역의도는 그가 1956년생으로 일제강점기라는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일본에서 『만엽집』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도도 이연숙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일본에서는 『만엽집』을 ‘일본’이라는 일국(一國)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일본 국학원(国学院)대학교에 재직 중인 다츠미 마사아키(辰巳正明)는 일국적

61) 이연숙, 앞의 책, p.4.

인 시각에서 『만엽집』을 바라보지 않고 고대의 동북아시아적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자 한다. 즉 다츠미(辰巳)는 이연숙의 『한국어역 만엽집』간행을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엽집』에 수록된 노래들이 불리던 시대는 일본에서 수나라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시대였던 만큼 동아시아의 교류 상황도 이 『만엽집』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 이처럼 『만엽집』은 당시 동아시아의 여러 상황 속에서 성립된 문학이라는 점에서 『만엽집』만의 특징을 지닌다.”⁶²⁾ 요컨대 고대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고대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을 시야에 넣으면서 『만엽집』을 바라보려는 일본의 새로운 흐름도 또한 이연숙과 같은 『만엽집』의 번역의도 곧 『만엽집』관을 탄생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⁶³⁾고 판단된다.⁶⁴⁾

참고문헌

경성제국대학(1933)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5권 대학서원, p.184.
 _____ (1941)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5권 대학서원, p.279.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1943)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6권 대학서원, p.11.
 경성제국대학예과(1924)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6권 대학서원, p.74.
 _____ (1928)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46권 대학서원, p.86.
 김사엽(1983) 『일본의 만엽집』민음사, p.4.
 _____ (1985) 『한역 만엽집 2-고대일본가집(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成甲書房, p.336.
 _____ (1985) 『항가와 만엽집의 상관관계』 『한남어문학회』제11집, 한남대학교, p.15.

62) <http://blog.naver.com/pijbook>(검색일:2012.12.24)
 63) 다츠미 마사아키가 이연숙에게 그의 『만엽집』 번역서인 『한국어역 만엽집 1-만엽집 권1·2』에 대한 축사를 보내왔다는 것을 보면, 그와 이연숙은 예전부터 학문적 교류를 했던 것 같다. 즉 이연숙은 다츠미의 『만엽집』관, 즉 일본이라는 일국적인 시각에서 『만엽집』을 바라보지 않고 고대의 동북아시아적 시각에서 그것을 보는 시각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64) 그렇다면 고대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지역 출신의 『만엽집』연구자나 번역자(가)는 『만엽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예를 들어 미국인으로서 일본문학연구자이면서 번역가이기도 하고 한편 작가이기도 한 리비 히데오(リビヒデオ)는 1982년에 『만엽집』을 『The Ten Thousand Leaves』로 번역하여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4년에는 『만엽집』을 발췌·번역한 『영어로 읽는 만엽집(英語でよむ万葉集)』을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출간하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세계문학으로서의 만엽집(世界文学としての, 万葉集)”이라는 시각으로 『만엽집』을 바라보고 있다. 곧 그는 여기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세계문학적 시각에서 『만엽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 히데오(2004) 『英語でよむ万葉集』岩波書店, p.1.

- 나카니시 스스무(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p.1.
- 박경희(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한국문학번역원, pp.208-258.
- 박상현(2008) 『한역 만엽집(万葉集)의 텍스트 연구』 『동아시아고대학』제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p.331-352.
- _____(2009)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79-194.
- _____(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 _____(2012)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 『만엽집』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7-132.
-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박이정, p.5.
-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다락원, p.281.
- 정선이(2002) 『경성제국대학연구』문음사, p.119.
- 조운제(1964) 『도남잡식』을유문화사, p.371.
- 청계김사엽박사추모기념사업회(2002) 『청계김사엽박사추모문집』박이정, p.41.
- 최상용(1994) 『일본·일본학-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오름, pp.28-29.
- 『회보』(1931) 『청구학총』제4호, 청구학회, p.187.
- 『회보』(1931) 『청구학총』제8호, 청구학회, p.205.
- 『회보』(1931) 『청구학총』제12호, 청구학회, p.195.
- 『회보』(1931) 『청구학총』제16호, 청구학회, p.127.
- 『회보』(1931) 『청구학총』제20호, 청구학회, p.196.
- 『회보』(1931) 『청구학총』제24호, 청구학회, p.200.
- 大野晋・佐竹昭広・前田金五郎(1990) 『岩波古語辞典』(補訂版) 岩波書店, p.1431.
- 金思燁(1979) 『記紀万葉の朝鮮語』六興出版, p.9.
- 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会(1974) 『紺碧遙かに-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耕文社, p.4.
- りーひ秀雄(2004) 『英語でよむ万葉集』岩波書店, p.1.
- <http://blog.naver.com/pijbook>(검색일:2012.12.24)

- ❖ 투고일 : 2012.12.28
- ❖ 심사완료일 : 2013.1.31
- ❖ 게재확정일 : 2013.2.5